

■ 광주 구청장 2019 신년사

# “동구, 문화중심도시 도약 원년 될 것”

임택 동구청장

“도시재생으로 원도심 활성화...저변 넓히겠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최근 “새해는 동구가 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기해년(己亥年) 포부를 밝혔다.

6일 동구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도시재생 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노력해왔다”며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저변을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실현 방안으로는 오기현·비움박물관·광주폴리·옛 동명호텔·농장다리·나무전거리·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동구가 보유한 문화재와 관광자원 활용, 주민참여형 생활문화예술 콘텐츠 강화 등을 제시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동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최근 개관한 푸른마을공동체 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다짐했다.

오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도시개발,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더불어 도로 및 하수도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임 청장은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성공적인 창업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며 “전통시장권역, 지산유원지, 동명동권역, 종장권역, 무등산권역, 인쇄의 거리, 예술의 거리 등 관내 7대 상권마다 특성화 사업 공모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창업허브를 조성해 스타트업 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기업 육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주민참여와 민·관 협치를 통한 자치공

동체 실현도 새해 목표다.

마을 커뮤니티 운영, 공동체 활동 지원, 청년 구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동 주민 중심의 자치 실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만들고자 2023년까지 4조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품고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동구가 전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적 장난감 회사인 레고는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기본에 충실하자’는 구호로 부활에 성공했다”며 “동구도 화려한 외양보다는 실속있는 내실을 길러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 동구 “4년간 2만5천명 일자리 창출”

민선7기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공공·민간지원

광주 동구는 최근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에 따른 '민선7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세우고 임기동안 공공부문-민간지원을 통해 일자리 2만5천여 개를 창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지역상권이 살아나는 일자리 민생경제'를 위한 민선7기 일자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27개 사업에 일자리 2만5천여 개를 창출한다. 지난 민선6기 72개 사업 1만 6천여 명 목표보다 9천여 명 증가한 수치다.

동구는 이를 위해 일자리창출, 일자리 인프라, 일자리 개선 등 3대 분야 6대 핵심전략, 15개 중점추진과제, 38개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특히 △맞춤형일자리창출 및 지원 △동구 7대 상권특성화 △지역핵심자원 활용지역 활성화 기반조성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환경 조성 등을 6대 핵심전략으로 내세웠다.

부문별로는 노인일자리 등 95개 사업 직접일자리 부문에 2만1천여 명,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등 사업 고용서비스 부문에 2천7백여 명, 내일키움 통장지원 등 고용장려금 부문에 1천여 명, 창업지원·직업능력개발훈련·일자리인프라·일자리질개선 부문에 1천여 명 등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산업단지가 없는 동구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것”이라며 “민선7기 임기동안 공공부문 및 민간지원을 바탕으로 지역민에게 지속가능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는 지자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목표와 대책을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실천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지역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시행 중이다. /서기만 기자

# “양질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서대석 서구청장

“좋은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주민 행복 서구 조성”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은 최근 “일자리 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6일 서구청에 따르면 서 청장은 새해를 맞아 “좋은 일자리는 사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최고의 복지”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자리전담 조직과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 일자리를 계속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을 위해선 공·폐가를 리모델링한 청년 생활문화 공간을 만들어 이곳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에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도 세웠다.

서 청장은 “찾아가는 소상공인 방문 도우미제와 중소기업 전화 상담센터 운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도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다.

경로당과 같은 환경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한다.

일반 가정에서 노후한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구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도 새해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주민들이 마을 현안을 직접 논의할 수 있도록 주민 총회와 아파트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한편 사회적가치 공동체지원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주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하게 이어가기로 했다.

‘온라인 서구민 행복1번가’를 통해 주민이 구정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구정을 제안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선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주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서 청장은 “우리 구 운영의 핵심가치 는 사람”이라며 “주민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jin2001@

# 남구 ‘재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축

대촌지역 마을·백운광장·봉선동·무등시장 등 21곳 설치  
폭설 등 각종 자연재난에 따른 생명·재산 피해 최소화

광주 남구는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시설 하우스가 많은 대촌지역과 지난 해 침수피해를 입은 백운광장 및 봉선동 명성아파트 일대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한다.

남구는 6일 “기후 변화에 따른 각종 자연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상황 전파로 주민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21곳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은 구청 재난상황실에 마련된 재난 예·경보 시스템과 연동돼 재난상황 발생이나 우려 상황을 스피커를 통해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메신저 장치이다.

구청에서 먼 거리에 위치한 지역까지 원격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정보를 전파할 수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올해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이 설치되는 곳은 대촌지역 마을 18곳을 비롯해 지난해 8월말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백운광장과 봉선동 명성아파트 주변, 무

등시장 일원이다.

우선 남구는 폭설과 폭우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시설이 많아 농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대촌지역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할 방침이다.

대촌지역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축 공사는 오는 2월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또 백운광장 및 봉선동 명성아파트 주변, 무등시장 일원에 설치되는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공사는 올해 4분기에 시작해 연말에 공사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구 관내에는 26곳에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구축 공사가 완료되면 총 47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예측이 어려운 각종 자연재난과 대규모 복합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축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주민 안전을 위해 자동 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전한 남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jin2001@



##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해동안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己亥年에도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16(역삼동) | TEL : 02-563-8107 FAX : 02-563-9616 | 홈페이지 : www.kgu.or.kr